



# 비료와 식량

2023년  
11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 스마트팜 지원·영농정보 앱 ... 디지털 농업 생태계 키운다

농협중앙회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 지원시설을 늘려나가고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 기술을 실증하고 예비 농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농업인의 빠른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한 기술 보급 거점을 만들어주고 스마트팜 창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충남 동천안농협, 서울 영동농협, 경기 양평농협 3개소에 센터 조성이 완료됐다. 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한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창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 설명이다. 동천안농협 센터에선 고령, 여성, 청년농 등 11개 농가가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중 5개 농가가 스마트팜을 창업했다. 이론교육에는 40개 농가가 참여했다.

농협중앙회는 향후 센터를 추가로 조성해 스마트팜 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곳만 해도 강원 남원주농협과 울산 농소농협, 경북 예천농협, 경남 부경원에 농협 4곳이다.

디지털 종합 영농 플랫폼 'NH오늘농사' 역시 농협중앙회가 시행 중인 사업이다. 농업 관련 빅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앱인 NH오늘농사는 영농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작물 경매와 병충해 예보, 영농일지(공익직불금과 연계), 로컬푸드 매출 현황, 지역별 보조금 안내, 귀농귀촌 작물 추천이 NH오늘농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출시 후 지난달 기준 가입자 57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 비중은 예비 농업인이 62.8%, 농협 조합원이 24.2%, 농협 임직원이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범농협 애그테크(농업 기술) 상생 혁신펀드도 운영 중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530억원 규모로 애그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됐고, 올해는 규모가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낮은 비용으로 혁신 기술을 이용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구상이다.

※ 매일경제(2023.11.9.)기사내용 인용

### □ (주)조비

#### ○ 완효성 비료 1위 조비, 애경케미칼과 맞손

- 생분해성 완효성 피복 공동개발 업무협약
- 생분해 기간 단축...글로벌 인증 획득 목표



14일 서울 애경케미칼 본사에서 조비와 애경케미칼 간 '생분해성이 우수한 완효성 피복 비료 공동 개발'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표경원 애경케미칼 대표, 이승연 조비 대표.

(주)조비(대표이사 이승연)와 애경케미칼이 토양 내 생분해율이 우수한 친환경 완효성 비료를 개발한다. 조비는 14일 애경케미칼과 '생분해성이 우수한 완효성 피복 비료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식물유래 물질의 함량을 높인 친환경 피복물질을 사용해 완전 생분해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단축한 고효율 완효성 피복 비료를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애경케미칼은 생분해성이 우수한 코팅용 수지를 개발하고, 조비는 이를 활용한 생분해 완효성 비료 완제품을 생산한다.

조비와 애경케미칼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토양 내 생분해성이 우수한 완효성 비료를 공동 개발한다. 향후 생분해성 관련 글로벌 공인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 출시 및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비는 국내 최초로 완효성 비료 제조 기술을 개발한 업계 선두주자다. 1987년에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첫 완효성 비료 '흙그린'을 출시했다. 이후에도 '단한번', '단번에올코팅', '빅센', '더존완효성' 등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며 40여년간 국내 완효성 비료 시장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조비는 완효성 비료를 환경과 작물 그리고 농민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개발해 오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식물성 오일 기반의 코팅용 수지가 적용된 완효성 비료를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해당 코팅용 수지는 미국 연방농무부의 바이오 소재 기반 인증(USDA)을 획득



하기도 했다. USDA 인증 획득을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여 나가는 중이다.

이승연 조비 대표는 “조비는 친환경 비료 개발과 탄소중립 그리고 이를 통한 ESG 경영을 복합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애경케미칼과 친환경 소재 및 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강화해 관련 품목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고품질화, 농업환경 보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업신문(2023.11.15.)기사내용 인용

## □ (주)팜한농

### ○ [인터뷰] 농업 기회 넓히는 그린바이오...연구개발·글로벌 전략으로 선도



2017년 11월22일은 팜한농의 작물보호제 ‘테라도’의 국내 제품 등록일이다. 일명 ‘신물질’로 불리는 농약 원제 개발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만의 잔치였으나, 팜한농은 국내 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원제를 개발하고 제품화에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농약시장인 브라질에 진출해 올해 1000억원대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엘지화학은 ‘그린바이오’(농업) 계열사 ‘팜한농’을 글로벌 아그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무용 팜한농 대표를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 집무실에서 만나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들어봤다.

- 먼저 팜한농 김 대표의 이력이 독특하다.

▶ 서울대학교 약학과 석사 뒤 LG화학 전신인 럭키중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한국 최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신약인 ‘팩티브’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의약화학 박사를 받고 스크립스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를 마쳤다. 약학 전공자가 왜

농업에 왔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의약학과 농업이 사업 형태가 비슷하다. R&D 중심의 신물질 사업이고, 규제가 많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래서 이전 레드바이오에서 썼던 여러 전략이 농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팜한농 최고경영자(CEO)로서 추구하는 경영 지침이 있다면.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드리는 기업,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 트렌드를 만드는 기업, 직원이 행복한 회사다.

예를 들어, 고령 농민에게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노동력 절감이다. 우리 비료 ‘에코물라’는 이전 같았으면 세번 투입했어야 할 비료를 신기술로 한번만 투입하게 도와주고, 코팅재료가 분해돼 환경도 보호하는 신제품이다.

또 ‘팜스비오’라는 농업용 비닐은 생분해돼 노동력을 절감해준다. 최근엔 ‘팜스올’이라는 디지털-파밍 솔루션도 출시해 영농 경력이 없는 청년농에게도 편리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적인 대농을 위해서도 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갖춰놓고 있다. 고객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고객에게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과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70년간 국내 1위 기업으로서 그냥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다. 주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또 세계에 진출해 우리나라 농산업을 살리는 일을 팜한농이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작은 회사가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패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예산도 많이 들 테고.

네번째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 모든 일이 다 직원이 행복해야 가능하고 선순환 되는 구조라서다. EX(Employee eXperience, 직원경험), CX(Customer eXperience, 고객경험), OX(Organizational eXperience, 조직경험)를 개선하는, 일명 에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CEO로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글로 정리해 ‘에코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 농민신문(2023.11.21.)기사내용 인용

## □ (주)풍농

○ "2024년, 지원대상 엔피코 유기질비료 3종 신청!!!"

"엔피코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시면 농가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9일(목) ~ 12월 7일(목)
- ◆ 신청품목(제품명) : 혼합유기질(토토그린), 혼합유박(토토유박, 토토유박골드), 유기복합(슈퍼70)
-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농업경영체



# 비료와 식량

-2023년 11월호-

-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20kg/포당 1,600원 지원
- ◆ 사용효과
  - 양분보유능력을 높여 양분의 유실을 막고, 식물에 적정하게 공급
  - 빗물에 의한 토양 유실을 막고 가뭄해를 최소화
  - 토양입자를 결합시켜 입단구조 형성
  -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양분의 이용성 촉진
  - 질소, 인산, 칼리, 유기물, 미량요소 등 필수양분 함유로 작물생육 왕성
  -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가능 목록공시자재

## 혼합유기질, 엔피코 토토그린

아주까리유박, 채종유박 등 순수 식물성유박과 골분 등 동물성 유기질원료의 장점만을 모아서 제조되어 작물생육 및 지력향상에 좋습니다.

## 혼합유박, 엔피코 토토유박

아주까리유박, 대두유박 등 순수 식물성유박 원료만으로 제조되어 비료효과가 지효적이며, 논·밭(과수원, 고랭지, 예정지), 시설재배지 등 모든 토양조건 및 작물에 생육에 효과적입니다.

## 유기복합, 엔피코 슈퍼70

순수 식물성유박, 골분 등 동물성 유기질원료, 랭베나이트 천연 광물질 다량 함유로 질소, 인산, 칼리의 함유량이 가장 높고, 타유기질비료와 달리 고토(마그네슘)를 함유하여 작물생육 향상 효과가 뛰어난 유기질비료입니다.



혼합유기질  
토토그린

혼합유박  
토토유박(골드)

유기복합  
슈퍼70

※ 풍농 자료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 워크숍 참석 (11.2.~3., 부산 호메르스 호텔)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협회 '2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 회장님 보고(11.14., 여수 남해화학)
-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 위원(강창용 박사) 협회 방문 면담(11.9., 협회 회의실)
- 농업전문지 내방객 안내 및 현안사항 설명(11.21., 협회 회의실)
- 협회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11.23., 협회 회의실)

##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 국 내 】

#### □ 내년 농업예산 1조2369억 증액 의결

##### ○ 농해수위, 비료가격 보조 등 확대, 예결위 심사 거쳐 본회의서 확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 2369억 증액해 의결했다. 증액안을 반영한 농식품부 예산은 19조5699원이다. 농해수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이같이 처리했다.

심사에선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이뤄졌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예산을 576억8100만원 확대했고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사업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사업 예산은 각각 653억7200만원, 519억2200만원 신규 편성했다.

국정감사 기간 화두였던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일부 복구했다. 농해수위는 농진청 소관 예산을 모두 757억원 증액 의결했는데, 지역별 대표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연구 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예산을 102억5100만원 확대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54억 원 순증했다.

가루쌀(분질미) 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선 가루쌀의 불투명한 시장성 등을 이유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감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소 위원장은 "국민들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로 넘어오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해수위는 소관 부처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가량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했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 농민신문(2023.11.13.)기사내용 인용



## □ 정황근 장관 “내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확보 최우선”

###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예산 심의단계서 최선” 밝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내년도 농업예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 주목된다.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소관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우려하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자재와 인건비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무기질비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도 “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기질비료 지원예산과 유가 보조금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사료구매자금 예산도 줄었다”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액할 건 하더라도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도 4분기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7만7642원으로, 2021년 8월 평균 판매가격인 61만4892원보다 42.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8월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산출한 후 2022년 1801억원(추경), 2023년 1000억원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황근 장관은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반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1.10.)기사내용 인용

## □ “농가 경영안정 예산 부실” 질타에··정황근 장관 “비료값 지원 노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농업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점은 반기면서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가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안호영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됐고 면세유값 급등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도 내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밖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



됐는데도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고 3년째 폭등하는 사료값 구매자금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사료·면세유 등 (농가를 어렵게 하는 게) 많은데 무엇보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노력할 테니 의원님들도 도와달라”고 답했다.

※ 농민신문(2023.11.10.)기사내용 인용

### □ “내년도 비료가격 폭탄 우려·국회서 막아달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비료가격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는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급등한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줬던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1801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줄더니 내년에는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년부터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면 비료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40%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무기질비료가격은 20kg 한 포대 기준 요소비료가 1만2000원, 복합비료가 1만1300원이었으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요소비료는 1만7700원으로 47.5%가, 복합비료는 1만6200원으로 43.4%가 오르게 된다. 이를 무기질비료가격이 폭등하기 전인 2021년 8월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2021년 8월 요소비료는 1만600원, 복합비료는 1만100원으로 내년에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이 사라지면 각각 66.9%, 60.4%나 오르는 셈이 된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하락하고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비 관련 지원마저 없으면 농업소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며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가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농업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비료가격은 농업인의 생산비와 직결된 부분인데 이러한 지원 예산마저 끊기게 되면 농업 현장은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해 무기질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보다는 농업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농자재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업인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지자체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나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비료가격 지원 예산을 없앴다”며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소득이 20년 보다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라도 관련 예산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에서도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 등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요소비료 수출 축소, 중동전쟁 우려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등 비료가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경영비 절감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2023.11.10.)기사내용 인용

## □ “비료값 인상분 정부 지원 절실”

### ○ 내년 관련 예산에 포함 안돼, 농가 부담액 2000억원 추산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 영향”, 농업계 “국회 심사서 반영을”

농협 판매가 기준으로 농민들이 올해 1만2000원에 쓰고 있는 ‘그레놀요소(20kg)’ 비료가 내년 부터는 1만7700원으로 오를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무기질비료값 인상분 지원이 내년에는 불투명 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내년에 농가가 떠안아야 할 전체 무기질비료값 인상 부담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강하게 나온다.

농협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무기질비료값 인상분 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36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비료값이 급등하자, 2022~2023년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8월 가격을 기준으로 무기질비료값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30%)이 나눠 지원한 것이다. 올해 기준 ‘21-17-17(20kg)’ 복합비료의 정상가는 2만550원이지만, 지원사업 덕에 농가 자부담액은 1만4050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정부·지자체·농협이 매칭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 지원도 끊길 것”이라며 “농협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다른 품목·농자재와 형평성 문제로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농가의 비료 수요량은 90만t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으로 비료 1t당 농가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65만1000원인데, 만약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87만8000원으로 쏠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최소 600억원은 편성해줘야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농협의 분석이다.

여기에 비료 원재료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등을 보면 비료 요소 수입가격은 1월 1t 당 537달러에서 7월 388달러로 내렸다가 9월 409달러로 반등했다. 요소 주수출국인 중국의 내부 사정과 국제 정세가 악화된 영향이다. 비료값 농가구입가격 지수도 2021년말 88.8에서 2022년 2분기 196으로 정점을 찍고, 올 2분기에도 147.4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연쇄 충격’을 우려하며, 국회 심사단계에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료값 상승이 영농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무기질비료값 지원사업 중단으로 걱정 시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했다.

※ 농민신문(2023.11.6.)기사내용 인용

## □ ‘강달러에 비료값 폭등… 곡물 생산 감소, 국내서도 우려 확산

### ○ 6월 이후 국제 비료값 급등, 중국 요소 수출 제한에 이-팔 사태로 불안감 더 키워 국내선 ‘비료가격안정지원’ 예산 백지화, “비료 사용 줄면, 생산량 줄 수밖에”

미국 등 선진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기름과 곡물, 그리고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작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뛰었던 비료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현대 농업의 생산량을 끌어올린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비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비료 사용량을 줄이면 농업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면 농작물의 가격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가의 비료 구입비를 보조하는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의 비료값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흑해곡물협정 파기 등으로 국제곡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진정 조짐을 보이던 비료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비료의 3대 핵심 요소는 질소·인·칼륨이다. 최근 들어선 해당 비료를 조합한 복합 비료를 농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복합비료의 가격은 요소와 탄산칼륨 등 원자재의 가격과 비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가 신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비료 원자재 가격 현황에 따르면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의 국제 시세는 지난 1월 418달러(1톤 기준)에서 지난 6월 279달러로 내림세를 보이다, 7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지난 9월 요소 국제 시세는 392달러를 기록했다. 세 달 만에 40.5%가 올랐다. 우리나라는 요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영향으로 비룻값이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예산 삭감으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가 보조금 지원도 끊길 전망이다.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은 얼마나 될까. 2021년 8월 요소비료인 ‘요소그레놀’ (20kg 기준)의 가격은 1만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 28900원으로 뛰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1만4650원)를 보조하면서 농가의 실 구매가는 1만4250원이 됐다.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요소그레놀의 가격은 2만700원(2023년 1분기) → 1만7700원(2023년 2분기)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3분기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다. 비료 가격이 올해 1분기 수준으로만 올라도, 비료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농가의 실 구매가는 2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뛰게 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최범진 정책실장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농가에선 결국 비료 시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료 사용이 줄면 결국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외신에서도 글로벌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기아 확산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15일 ‘비료 부족은 어떻게 기아를 확산하는가’(How a Fertilizer Shortage Is Spreading Desperate Hung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월 이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료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는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ActionAid)의 관측과 함께 “서부·중부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스러운 정도로 심각하다”는 세계은행(WB)의 전망을 전했다.

NYT에 따르면 비룻값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공급망 불안을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비료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탄산칼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세계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는데, 서방권의 러시아에 대한 통제로 탄산칼륨 공급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

비료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에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강달러’ 현상이 확산한 것도 농가의 비료 확보 부담을 키웠다. 비기축통화국인 개도국에선 달러 강세로 비룻값 상승 충격이 더 컸던 탓이다.

이에 대해 NYT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면서 “국제 시장에서선 비료 등의 가격은 달러로 책정이 돼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 입장에서선 훨씬 비싸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료값 부담에 농민들이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농업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식량 가격 상승과 대규모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NYT는 강조했다.

농업 보호를 위해 곡물 수입량을 통제하고 있는 한국에선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산 농작물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비료값 부담으로 농가가 비료를 적게 사용해 쌀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다면 얘기가 다르다. 시장에 쌀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쌀값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정세와 공급망 현황은 비료값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졌고,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해상 운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 실장은 “지난 8월과 2021년 8월을 비교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만 17%에 달한다. 원재료 수입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비즈(2023.11. 5.)기사내용 인용

## □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해야”

###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등 5대 사업 증액 요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31일 발표했다.

한농연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대비 1조 원 순증한 18조 33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 사료구매자금 축소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다소 아쉽다”며 5대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600억원 편성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사업 13억원 증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액 2200억원 추가 편성 등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2023.10.31.)기사내용 인용

## 【 국 외 】

### □ 캄보디아 비료 시장 동향

- 자국 내 생산시설 미비로 화학비료 전량 수입에 의존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 정책으로 화학비료 수요 증가 추세

#### 〈 수입동향 〉

비료는 크게 유기비료와 화학(무기)비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 내 비료 생산은 유기비료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학비료의 경우 생산시설이 전무한 수준이다. 최근 정부에서 자국 내 비료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유기비료의 높은 가격에 따른 제한적인 생산과 낮은 품질로 시장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내 대규모 비료 생산시설 부재로 캄보디아 전체 농경지의 연간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가 비료 사용은 인근국으로부터 화학비료를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캄보디아 전체 비료 수입액(HS Code 31 기준)은 총 2억8691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질소 및 인산 비료의 국별 수입은 가격이 저렴한 베트남과 태국산 비료의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두 국가에 대한 높은 비료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캄보디아 비료 수출의 경우 주로 질소비료(HS Code 3102)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캄보디아의 비료 수입국 중 6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2022년의 경우 171만 달러의 금액을 수출해 전년 대비 22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對캄보디아 인산비료(HS Code 3103) 수출이 전무한 반면, 복합비료(HS Code 3105)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캄보디아에 복합비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34만 달러의 금액을 수출해 전년 대비 700%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 유통구조 및 경쟁동향 〉

캄보디아에서 한국 비료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 부족한 인지도와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베트남, 태국 등의 인근국 비료에 비해 수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유통구조상 캄보디아 유통업체를 통해 비료를 납품하게 되는데 유통업체 역시 물류비 및 제품가격이 저렴한 베트남과 태국산 비료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쌀, 옥수수 재배 농가들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한국산 비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 시사점 〉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비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료 구매 기준은 가격으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베트남과 태국 중심으로 고착화된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가격 이외에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 등 한국산 제품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 KOTRA 해외시장뉴스(2023.11.10.)기사내용 인용



## □ 중,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 통제 강화

### ○ 로이터 "갈륨·게르마늄·흑연 통제 이어 다음은 희토류라는 우려 촉발"

중국이 희토류,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이 자원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음 차례는 희토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광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한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중국이 발표한 상품 보고 규제 명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상무부는 이는 "대규모 상품의 수출입 상황과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외국 무역업자가 질서 있게 수출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 회피의 근거를 제공하며 대외 무역 안정화에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된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 정보, 원산지, 계약 일자, 양과 도착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같은 정보 보고 규정은 이미 대두, 분유,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농업상품에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철광석 분석가 청펑은 로이터에 "이로 인해 통관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분석가는 자료 수집은 중국 정부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더 큰 통제에 앞서 진행하는 첫번째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무역신문(2023.11.7.)기사내용 인용

## □ 중, 수입 가장 많이 줄인 국가는 한국

### ○ 수출 -6.4%, 전월과 전망치 하회, 수입 12개월만 플러스 전환

韓으로부터 수입 10월 누적 -21.7%, 최대 감소국

수출 -6.4%, 전월과 전망치 하회

7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0월 중국 수출은 2748억3000만달러(약 359조원)로 전년 동월대비 6.4% 줄었다. 전월 -6.2%, 전망치 -3.3%를 모두 하회했다.

중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취급하는 희토류는 9월 -23.7%에서 -27.7%로 수출이 더욱 줄었다.

집적회로는 전월과 같은 -14.1%로 집계됐다.

### 수입 12개월만 플러스 전환

10월 수입은 2183억2000만달러(약 285조원)로 3.0% 증가했다. 전월 -6.2%, 전망치 -4.8%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천연가스(-7.3%), 미용용품(-18.8%), 플라스틱(-21.2%), 천연·합성 고무(-10.2%), 강철(-27%) 등은 수입이 부진했으나 2t 이상 항공기(53.3%), 비료(13.4%), 정제유(44.4%), 석탄(26.7%), 식용 식물성 기름(34.9%) 등은 증가했다.

### 韓으로부터 수입 -21.7%, 최대 감소국

국가·지역별(누적)로는 1년 전과 견줘 한국으로 수출은 8.2%(전월 -7.5%) 감소한 반면 수입은 더 큰 폭인 21.7(-23%) 줄었다. 대일본 수출은 -8.6%, 수입은 -15.4%로 기록됐다. 미국으로 수출은 -15.4%, 수입은 -5.8%였다.

해관총서 데이터에 기록된 국가·지역 중에서 수입 감소 폭이 가장 큰 단일 국가는 한국이다. 유일하게 -20% 이상으로 적시돼 있다.

※ 파이낸셜뉴스(2023.11.7.)기사내용 인용

## □ 벨라루스 칼륨비료 시장과 한국의 칼륨비료 수입 동향

한국의 칼륨비료 수입량은 2020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수입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1~9월은 전년 동기 대비 50%나 감소했고, 벨라루스를 제외한 캐나다, 이스라엘, 라오스 등에서 수입했다.

벨라루스로부터의 칼륨비료 수입은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한국의 칼륨비료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부과된 경제 제재로 현재까지 벨라루스 칼륨비료는 수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칼륨비료 공급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불확실성의 지속은 칼륨비료를 포함한 주요 비료의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어 칼륨비료 가격 역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칼륨비료 가격 상승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KOTRA 해외시장뉴스(2023.11.1.)기사내용 인용

## □ 세계은행의 경고 “아·팔 분쟁 격화시 유가 150달러 돌파 가능”

WB는 30일(현지시간) 이날 ‘상품시장전망(CMO)’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1970년대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어 주요 유가 충격에 대처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에 더해 최근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이중적 충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WB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가는 이번 분기 배럴당 평균 90달러를 기록한 후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배럴당 평균 81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유가와 상품 가격 전반이 하강하는 것이 WB의 기본 시나리오다.

하지만 WB는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되면 이런 전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1973년 아랍 석유 금수조치에 필적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전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 600만~800만배럴 줄어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WB의 전망이다.

WB 수석이코노미스트 인테르미트 길은 “최근 중동 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는 이중적 에너지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세계은행은, 운송비, 비료 가격이 덩달아 뛰어 농산물 가격이 치솟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혼란은 식품가격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데일리(2023.10.31.)기사내용 인용

## 4 농정 이슈

### □ 농가 생산비 ‘암계점·특단의 영농지원 대책을

#### ○ 농경연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비료·영농광열비 직접적 영향”

정부 보조 없으면 농업소득 ↓,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돼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슈 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 석유 공급량이 감소해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는 비료비와 영농광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이 인용한 세계은행 전망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2011년 리비아 사태 때처럼 확산할 경우 석유 공급량이 줄어 4분기 국제유가(브렌트유)가 배럴당 93~10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1973년 석유파동 때처럼 격화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157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발발 이전엔 배럴당 84달러선이었다.



농경연은 “국제유가는 비료비와 영농광열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이 인상될 때 정부 지원이 없으면 농업소득 감소율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도입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유지 정책 등을 검토하고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대란으로 이미 농가 살림살이는 극한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지난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100.4)는 2016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 농가 생산비 부담을 낮출 정부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농민신문(2023.11.20.)기사내용 인용

## □ 쌀 값도 오른다·2008년 식량위기 이후 최고 수준 전망·인도, 내년에도 쌀 수출 금지할 듯

### ○ 모디 정부 내년 선거까지 수출제한 조치 유지 전망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내년에도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쌀 가격이 2008년 식량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10년간 낮은 가격과 충분한 비축량에 힘입어 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의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국내 쌀 가격 상승을 억제해 자국 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쌀 수출제한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노무라 홀딩스의 소날 바르마 인도 및 일본 제외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가 내부적으로 쌀 가격의 상승압력에 직면하는 한 이런 제한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심지어 선거 이후에도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는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과 비(非)바스마티쌀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쌀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 가격 이하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쌀 가격도 지난해 동기보다 24%나 올랐다.

B.V. 크리슈나 라오 인도 쌀수출협회장은 모디 정부가 국내에서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내년 선거 때까지 수출 제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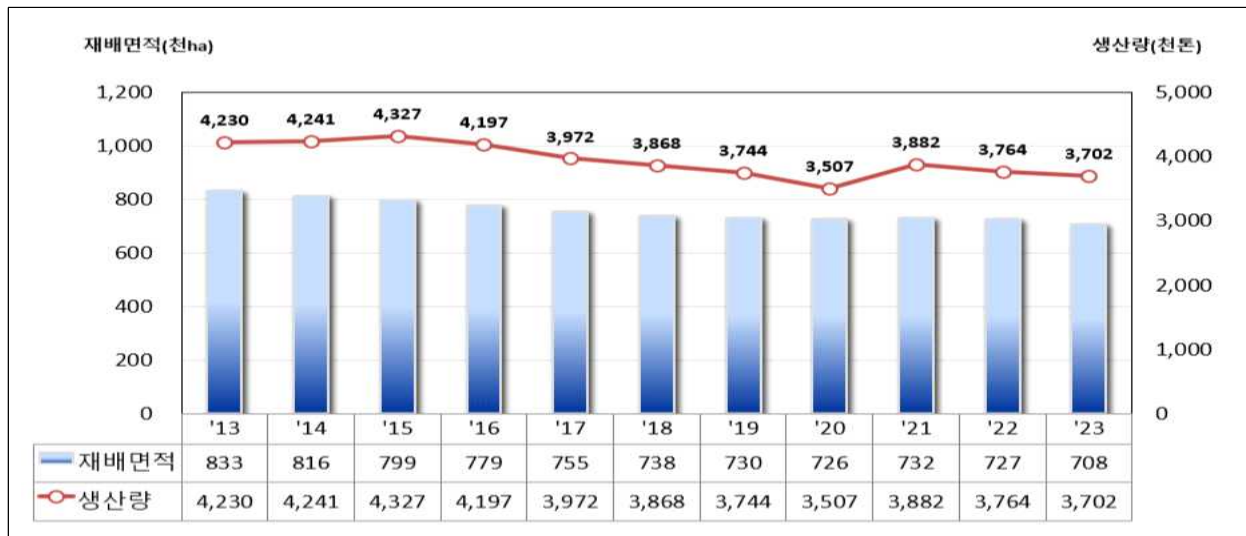
※ 서울경제(2023.11.20.)기사내용 인용

## □ (통계청)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 ○ 쌀 생산량은 370만 2천톤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 재배면적: ('22) 727,054ha → ('23) 708,012ha (△2.6%)
-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 ('22) 518kg → ('23) 523kg (1.0%)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2) 504kg → ('23) 509kg
- 생산량(현백률 92.9%): ('22) 3,764천톤 → ('23) 3,702천톤 (△1.6%)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2) 3,662천톤 → ('23) 3,603천톤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



※ 통계청(2023.11.14.)보도자료 인용

### □ 전농 “농민 생존 위기·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해야”

농민 단체가 쌀값 폭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 농가 소득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며, 농민 생존을 위한 지원 조례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와 농약, 전기 등 필수 농자재 값은 치솟는데 정부는 대책 대신 농산물값을 깎으려고만 한다면, ‘농도’ 전라북도가 나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인 농자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오은미 의원 등 전북도의원 33명은 앞서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으며, 농민 단체는 오는 11일 서울에 모여 농업 파괴 중단과 국가책임 농정 실현 등을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 KBS(2023.11.8.)기사내용 인용

### □ 우수 농기자재 대상 4개국 해외실증 참여제품 모집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기자재 현지실증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 2024년도 국가지정형 해외 테스트베드사업 참가 모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내 농기자재의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해 수출발판을 마련하는 ‘2024년도 국가제안형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4개국 총 19개 참가제품을 모집할 예정이며, 농기자재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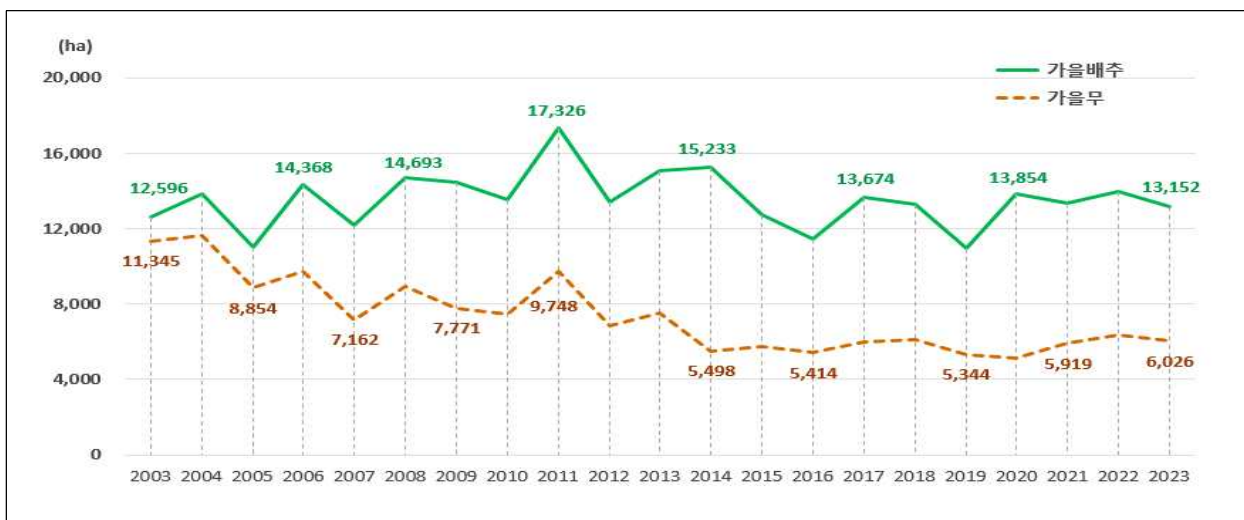
농자재 분야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모집하며 농기계 분야는 인도 1개국에서 모집한다. 공모에서 선정 될 경우 농진원에서 발굴한 실증기관에서 농기자재의 효과 검증용 또는 인허가용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박람회 연계 마케팅 지원, 운송비 지원 등의 지원도 추가된다. 국가별 상세 지원내용, 신청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www.ko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농기자재신문(2023.11.6.)기사내용 인용

### □ (통계청)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23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152ha로 전년 13,953ha보다 5.7% 감소
  - 금년 정식기 배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 '23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026ha로 전년 6,340ha보다 5.0% 감소
  - 금년 파종기 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 연도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추이 >







<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단위: ha, %)

구 분	2021년	2022년 (A)	2023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가을배추	13,345	13,953	13,152	-802	-5.7
■가을무	5,919	6,340	6,026	-314	-5.0

※ 통계청(2023.10.26.)보도자료 인용

##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공급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9월	2023년 9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1,618	1,383
출 하 량	2,054	2,429	1,860	1,565	1,458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환 율 (매매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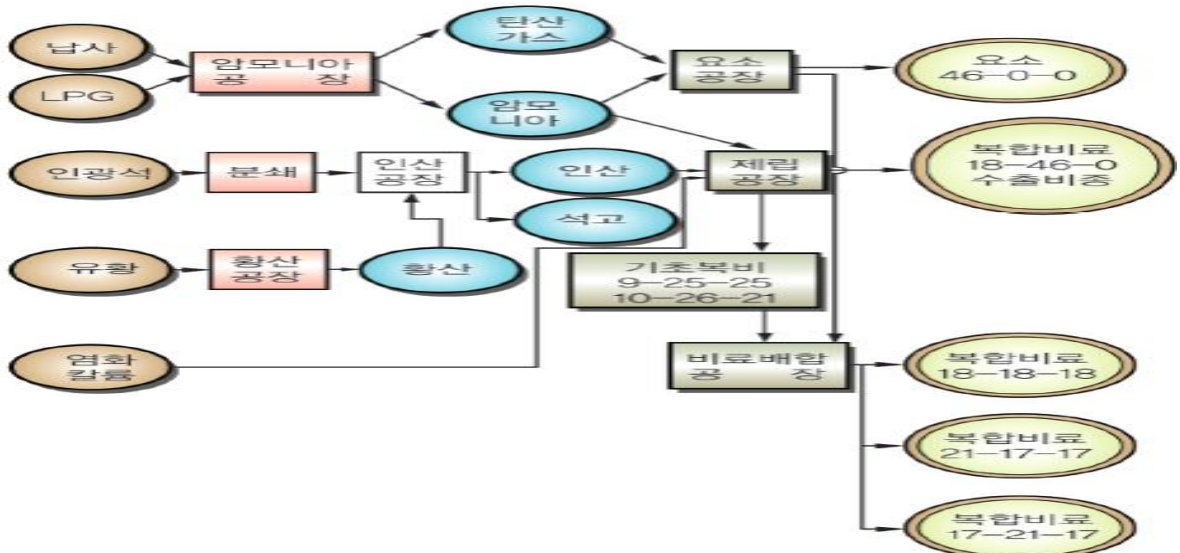
## 6 무기질비료 상식

### □ 복합비료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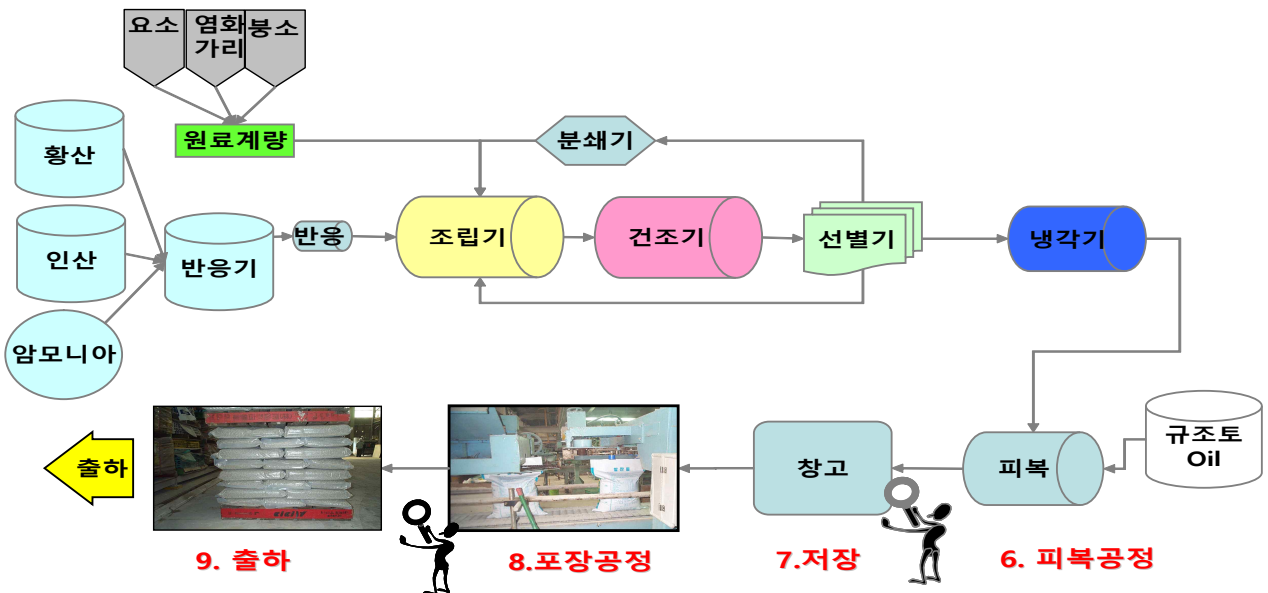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복합비료는 농작물의 발아성장 및 결실에 필요한 3대 영양소인 질소, 인산, 칼리 중 2종 이상의 성분이 함유된 비료입니다. 제1종 복합비료, 제2종 복합비료, 제3종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등이 있으며,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복합비료는 인광석, 황산, 인산,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만들어진 제2인산암모늄 또는 유인산과 염화칼륨, 황산칼륨 및 요소, 유산 등 무기질비료를 원료로 하여 3요소 중 두 가지 이상 비료성분을 화학적 과정을 거쳐 제조한 비료를 말합니다.

1.반응공정      2.조립공정      3.건조공정      4.선별공정      5.냉각공정



제2종 복합비료는 무기질비료를 기계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 및 제1종 복합비료 중의 2종 이상을 배합하여 만든 비료를 말하며, 제3종 복합비료는 제2종 복합비료를 원료로 하여 유기물을 배합한 비료를 말합니다.

제4종 복합비료는 수화제나 액상형태로 만들며, 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수용성칼리 중 2종 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인 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과 합계량이 0.2%이하인 화초용으로 구분됩니다.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자료 인용

## 7 이달의 주요 인사

## 8 회원사 제품 소개

###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올원30
- 성분량 : 30-7-7+1+0.1+HAC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요소 10% 함유하여 효과가 지속적
  - 고농도 질소를 함유하여 사용량 절감 가능
  - 고토, 붕소를 함유하여 미질 향상
  - HAC이 함유되어 뿌리발육 촉진, 비료흡수 증대

### □ (주)조비



- 제품명 : 스피드주비
- 성분량 : [13]-1-12+1+0.1 (질산태 질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인 질산태 질소를 함유하여 양분 흡수가 빨라 초기생육에 도움이 됨
  - 질산태 질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좋아짐
  - 질산태 질소는 양이온의 흡수를 좋게 하여 작물의 생리장애 예방 및 고품질 생산에 도움을 줌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 (주)팜한농



- 제품명 : Eco-sol(High K)
- 성분량 :  
3-15-43+1+0.05+철0.025+망간0.025+아연0.008+구리0.0075+몰리브덴0.0005+PAA(뿌리발육 아미노산)
- 특성 및 효과
  -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원료의 효율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품질 관주용 비료, 용해도가 아주 뛰어나 관주시 노즐의 막힘이 없고 작물 흡수가 빠름
  - PAA(뿌리발육 아미노산) 함유로 뿌리발육이 촉진되고, 양분흡수 및 토양 보습효과가 증대

## □ (주)풍농



- 제품명 : 쌀플러스맛나
- 성분량 : 12-6-6, 고토2, 붕소0.1, 규산5, 석회10
- 특성 및 효과
  - 필수 3요소와 고토, 규산, 석회, 붕소 및 유황 다량함유
  - 고품질 쌀 수확을 위해 다량의 고토함유로 벼 생육, 미질향상
  - 다량의 규산, 석회 함유로 멸구, 도열병 예방에 효과적
  - 벼 가지거름 생략이 가능한 지효성 성질의 비료효과



##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파워한번에OK
- 성분량 : 22-6-9+1+0.1(코팅NK, 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고성능 완효성비료, 우수코팅 질소, 칼리 함유
  - 한번 시비로 이삭거름까지 지속(90일 영양분 지속)
  - 측조시비가 가능하며, 벼 생육주기에 알맞게 영양공급

##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30
- 성분량 : 30-7-8+1+0.1(측조시비 가능)
- 특성 및 효과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된 고농도 복합비료로 시비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할 수 있는 비료
  - 저인산비료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개량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 향) 향상

※ 무기질비료 사용안내서 인용



# 비료와 식량

-2023년 11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